

##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4차 성찬식(1~5부예배) 및  
어린이·어버이주일(2·3부 가족연합예배)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갈 5:22~23)는 오직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에서 시작됩니다(갈 5:24).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제4차 성찬식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어린이·어버이 주일을 맞아 드리는 가족연합예배(2·3부)를 통하여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가정은 영원토록 행복합니다.

복음전파  
삶에서 시작!

복음전파는 지상명령입니다(마 28:18~20). 지상명령이란 우리가 가장 우선 해야 할 최고의 명령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복음전파'는 어디쯤 위치합니까? 혹시 분주한 일상 때문에 복음전파를 잠시 뒤로 미루거나 혹은 잊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전파에는 마칠표가 없습니다(마 24:14). 복음전파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도 복을 전하는 자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고전 9:14). 복음전파,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십시오. 특히 오늘 찬양예배 후에 개강될 선교훈련(CMTC)과 이번 주 토요일(8일)에 있는 선교수련회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석을 기대합니다.

복음  
The Gospel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어머니 ①

(사무엘상 1:19~28)

보통 사람들은 한나를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으며 그 아들의 이름으로 된 성경(사무엘상·하)도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사무엘을 낳기까지 그녀의 삶은 괴로웠고 슬펐다(삼상 1:7).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셨지만 그녀의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삼상 1:5). 이것은 세상의 계산법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법이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다른 방법이 있으셨던 것이다. 아주 역설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한나는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다(삼상 1:10~11).

## 1.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의 삶은 무척이나 괴로웠다. 물론 그의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많이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삼상 1:12~13). 그녀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던 것이다(삼상 1:18). 사실이 고백을 할 당시 한나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미 아들을 낳을 줄 확신하며 엘리 제사장에게 도움을 간구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그녀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였다(삼상 1:19).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로 나타났으며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다(삼상 1:20).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 때까지 성전에 가지 않았으며 젖을 떼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다(삼상 1:21~28). 젖을 떼면 아이를 성전에 맡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 2. 약속을 지키는 여인이었다

엘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에 한나는 즉시로 고백하였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삼상 1:18). 사실이 고백을 할 당시 한나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미 아들을 낳을 줄 확신하며 엘리 제사장에게 도움을 간구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그녀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였다(삼상 1:19).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로 나타났으며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다(삼상 1:20).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 때까지 성전에 가지 않았으며 젖을 떼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다(삼상 1:21~28). 젖을 떼면 아이를 성전에 맡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 DAVID & MEPHIBOSHETH

***(1)Then David said, "Is there yet anyone left of the house of Saul, that I may show him kindness for Jonathan's sake?" (2)Now there was a servant of the house of Saul whose name was Ziba, and they called him to David; and the king said to him, "Are you Ziba?" And he said, "I am your servant." ...***

***(12)Mephibosheth had a young son whose name was Mica. And all who lived in the house of Ziba were servants to Mephibosheth. (13)So Mephibosheth lived in Jerusalem, for he ate at the king's table regularly. Now he was lame in both feet. (2 Samuel 9:1-13)***

Mephibosheth was the son of Jonathan, and the grandson of Saul. Saul was the first king of Israel who failed miserably at his anointed position. During his entire kingship, Israel underwent severe wars with the Philistines because of Saul. The Israelites lived with the rumors and sounds of war, with killing and earthquakes, and going without food. Their living environment was not that much different from ours of today. Every day in the news we hear about killings, wars, famines, flooding, and terror attacks. Regarding the signs of the end of this age, the Bible tells us. "You will be hearing of wars and rumors of wars. See that you are not frightened, for those things must take place, but that is not yet the end. For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in various places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Mt. 24:6-7). Our world has no peace. God touched the heart of a young shepherd, David, and anointed him to be Israel's king. "Now therefore, thus you shall say to My servant David, 'Thus says the LORD of hosts, "I took you from the pasture, from following the sheep, to be ruler over My people Israel. I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have gone and have cut off all your enemies from before you; and I will make you a great name, like the names of the great men who are on the earth. Your house and your kingdom shall endure before Me forever; your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ever"'(2 Sam. 7:8-9,16). David was weak, but God made his kingdom strong. Saul repeatedly tried to kill David, but David escaped each incident. After Saul's death and David's conquests for the kingdom of Israel, he turned around and asked a question. "Is there yet anyone left of the house of Saul, that I may show him kindness for Jonathan's sake?"(2 Sam. 9:1). David's heart was filled with loyal love for his friend Jonathan, and deeply desired to help any of his unfortunate descendants. His heart in this matter reminds us of God's heart toward us.

Mephibosheth was a man with lame feet. The Bible tells us. "Now there was a servant of the house of Saul whose name was Ziba, and they called him to David; and the king said to him, 'Are you Ziba?' And he said, 'I am your servant.' The king said, 'Is there not yet anyone of the house of Saul to whom I may show the kindness of God?' And Ziba said to the king, 'There is still a son of Jonathan who is crippled in both feet'"(2 Sam. 9:2-3). During Saul's fall, the nation of Israel was in turmoil, and Jonathan's son suffered a terrible accident at the hands of his nurse. "Now Jonathan, Saul's son, had a son crippled in his feet. He was five years old when the report of Saul and Jonathan came from Jezreel, and his nurse took him up and fled. And it happened that in her hurry to flee, he fell and became lame. And his name was Mephibosheth"(2 Sam. 4:4). We are all like Mephibosheth.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Rom. 3:23). We

never practice our faith rightly. Galatians 5:19-21 warns us. "Now the deeds of the flesh are evident, which are: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idolatry, sorcery, enmities, strife, jealousy, outbursts of anger, disputes, dissensions, factions, envying, drunkenness, carousing, and things like these, of which I forewarn you, just as I have forewarned you,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Mephibosheth was lame for life. His fear was to one day face the king, because it was the custom for all members of a previous dynasty to be killed. His real life circumstances were like a picture of a sinner running from God, unhappy, and without hope.

The king sent an invitation to a man of lame feet. "Then King David sent and brought him from the house of Machir the son of Ammiel, from Lo-debar"(2 Sam. 9:5). Finally, that knock which Mephibosheth had dreaded came to his door. For most of his life he hid, and lived under terrible conditions. The town he lived in, Lo-debar, meant a place with no pasture. Mephibosheth never expected a king's invitation for his good. He came to David and "fell on his face and prostrated himself. And David said, 'Mephibosheth.' And he said, 'Here is your servant!'"(2 Sam. 9:6). The king called Mephibosheth by his first name and said to him. "Do not fear, for I will surely show kindness to you for the sake of your father Jonathan, and will restore to you all the land of your grandfather Saul; and you shall eat at my table regularly"(2 Sam. 9:7). King David took away his fears, blessed him, restored to him that which he had lost, and gave him satisfaction and security. Mephibosheth had to be surprised, just like everyone who comes to Jesus Christ. Jesus invites everyone.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Mt. 11:28). Jesus gives us peace and eternal life.

Mephibosheth sat at the king's table with his lame feet. King David gave him everything he had lost from his earthly father. He was even invited to eat at the king's table in a position as one of David's own sons. "So Mephibosheth ate at David's table as one of the king's sons"(2 Sam. 9:11). He was invited to dwell in the king's city, Jerusalem, the city of peace. He continued to be lame in both his feet, but now these lame feet were under the king's table. "So Mephibosheth lived in Jerusalem, for he ate at the king's table regularly. Now he was lame in both feet"(2 Sam. 9:13). At the king's table no one could see his weakness, only his glory.

My dear friends, God seeks to do you kindness for Jesus' sake. Please respond to His invitation, and place your lame feet under God's table. Like Mephibosheth, we are all lost and broken. Our fellowship with God can only be restored through Jesus. Without doubt, when you accept God's invitation you will find tremendous peace and comfort. Moreover, you will receive everlasting love and life. Amen. 



## 다윗과 므비보셋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중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나라 그는 두 발을 다 절터라 (사무엘하 9:1~13)



김성관 목사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비참한 실패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군림했던 기간 내내 이스라엘 민족은 그로 인해 블레셋과의 치참한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의 소리와 소문, 살상과 지진, 식량난은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살상과 전쟁, 기근, 홍수, 테러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 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사 24:6~7).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목동,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중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겠다 하라”(삼하 7:8~9,16). 다윗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번번이 그것을 피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한 후 다윗은 말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삼하 9:1).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가엾은 그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 므비보셋 같은 우리

므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중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내가 저를 자니이다 하니라”(삼하 9:2~3).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격동에 휘말렸고 요나단의 아들은 유모의 손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삼하 4:4). 우리는 모두 므비보셋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롬 3:23).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19~21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

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므비보셋은 목숨을 구하러 다리가 절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어느 날 왕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왕조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불행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 왕의 초대

왕은 다리를 저는 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삼하 9:5). 마침내 므비보셋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평생 숨어 지내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므비보셋은 왕이 호의적으로 자신을 부르려하는 한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삼하 9:6). 왕은 므비보셋의 성이 아닌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먹음지니라”(삼하 9:7). 다윗 왕은 그의 두려움을 없애고 축복했으며 잃어버렸던 것을 되돌려 주고 만복과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처럼 므비보셋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 왕의 상에 앉았다

므비보셋은 저는 다리로 왕의 상에 앉았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므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윗의 아들 중 한 사람과 같이 왕의 상에서 먹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삼하 9:11). 그는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 곧 평화의 도성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절었지만 이제 저는 두 다리는 왕의 상 밑에 감추어졌습니다.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나라 그는 두 발을 다 절터라”(삼하 9:13). 왕의 상에서는 아무도 그의 연약함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저는 다리를 하나님의 상 밑에 두십시오. 므비보셋과 같이 우리는 모두 잃어버리고 깨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분명 놀라운 평화와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 기쁜날 삶

## 기도의 부흥 ①

(야고보서 5:13~18)

야고보는 재물 욕심에 빠진 사람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였다(약 5:1~6). 또한 그는 신자들의 초점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있어야 함을 주의 강령과 마지막 심판을 예로 들며 권고하였다(약 5:7~12).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 가르쳤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약 5:13). 기도는 인간 자신의 능력과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약 5:14) 해야 함을 강조하며,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야고보는 계속해서 밝혔다(약 5:15~18). 이처럼 야고보서 5장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와 믿음의 기도이다. 왜 기도의 부흥이 필요한가?

**교회가 미지근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기도의 부흥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책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계 3:16, 18~19). 이 책망은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 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진 채 세상에 섞여 종교 예식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악한 영들은 거짓 종교인들을 이용하여 더욱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마 24:11~12; 암 6:1).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의 초점에서 흐려지면 안 된다.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교회는 미지근해지며 반드시 세속에 물들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미지근해진다. 뜨겁게 기도하자.

**땅에 속임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이 땅에 속임이 가득 차기 때문에 기도의 부흥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이 신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이다(마 24:4~5, 11, 24). 미혹하는 사람은 많은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도 가졌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들은 반드시 속게 된다. 속을 뿐만 아니라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딤후 3:13).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걸로와 와서 어그러진 말로 우리를 속일 것이다(행 20:28~30). 따라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허탄한 이야기에 속게 될 것이다(딤후 4:1~4). 그 속임이 자존심을 지키며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땅에 가득한 속임수에 넘어간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 다음 호에 계속

## 교역자 간증

## 여리고의 맹인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재찍잡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눅 18:31~33)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나 권위자들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깨달았고, 어린 아이들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라고 말하겠지만 실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랐습니다. 입술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지만 정말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절실히 고백합니다. 실로 나의 삶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저도 제자들처럼 인자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헛된 신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복음의 광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질병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여리고의 맹인,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맹인은 이방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며, 나 사벳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맹인은 외쳤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비랑 끝에서 서 있는 자처럼 절박함으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의 절박한 외침은 생명을 건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니다. 맹인의 외침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제 영혼은 절박함을 원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간절함을 제 영혼은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이 육체의 최상으로 손가락에 씌어지는 것을 보고 소소리치게 놀랍니다. “오 주여! 저에게도 맹인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황의연(목사, 초동2부)

## 나에게는 For To me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실의에 빠지는 것은  
지식이 없음이 아니라  
돈이 없음이 아니라  
명예가 없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빌 1:21, 공동번역)

그림 / 원종진(교동부)



## 망글까지

## 통로

지난 해 10월 말경 밤  
의 골절로 걸음을 제대로  
걸지 못하던 나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  
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  
지. 선교구호 중에 '앞에는  
성령인도 뒤에는 기도후원, 낮  
에는 복음전파 밤에는 열작무장'  
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았다. 그  
것이 이번 선교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출발했는데, 주님은 날마다 나를 은혜 속에 복  
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

강렬한 햇빛 아래 몸은 힘들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순종하게 하셨다. 좁은 발길을 따라 한집 한집  
축조전도를 하다가 길을 잃어 헤맨 적도 있었지만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 개인, 가족, 친족 그리고 이 땅이 복음화 되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다!'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한다. "내 길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분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김정숙(군사, 12교구)

## 은혜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곳은 잘 사는 나  
라가 아니었고 날씨도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하는 것에 대한 체제도 많지 않고 사람들이 대  
체로 착하고 하는 말을 잘 들어 주어서 좋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  
들이 불교를 믿지만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히 받아들  
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나라 사람이 직접 전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  
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요한(중등부)

## 지금 준비하세요! 선교(1) 선교언어 훈련

선교지의 언어를  
현지인 강사들이  
아주 쉽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 선교언어 훈련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과관 405호(4층) 406호(02호) 501호(관동도) 504호(우르도) 505호(베르나) 506호(12호) 507호(종동) 508호(인도) 509호(4호) 510호(소문경)

언어훈련 중인 단기선교 준비생들

## 감사

매해마다 중등1부 학생들과 선교를  
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어느 부서보다  
도 중등1부 팀원들은 소년 소녀 시절에  
열반이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 된 일이다. 게다가 주님의 동  
행하심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일임을 늘  
경험한다. 아버지께서는 이번 선교에서  
도 우리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할 수 있  
도록 인도해 주셨다. 우리 팀원들이 기  
도하게 하시고, 이 최인을 철저하게 회  
개하게 하셨다.

한 학생이 출발하기 직전에 구토를 했  
다. 병원에서 켄헨다는 말을 듣고 출발  
했지만 비행 중 무려 3시간 반 동안 심  
한 구토 증상을 보였다. 어느 누구도 도  
움을 줄 수 없었고, 가녀린 학생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인스르웠다. 나는 하  
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해 달라  
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나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도 평안한 마음  
과 확신이 느껴졌다.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끝  
낸 뒤 아이가 있는 곳을 바라보니 아이  
는 주스잔을 들고 있었다. 그토록 소리  
내어 구토하던 증상이 멈추어 있었다.  
나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큰 소  
리로도 칭고 싶었다. 주님께서 살아 계  
시다고... 어느 해보다도 선교를 잘 하  
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  
었다. 역시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  
웠다. '기도하며 나아가 선교하자' 라는  
선교 구호를 외쳤던 것처럼 복음을 담대  
하게 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준비한 선  
교언어로 열정기도를 모두 따라하게 하  
고 "아멘, 아멘"까지 반복해서 하게 할  
수 있었다.

이번 선교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지,  
하루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다  
시금 깨닫게 되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  
음 전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혜전(교사, 중등부)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4월 26일(월) ~ 5월 6일(목) | 24교구 1팀 | 김금숙 |
| 4월 30일(월) ~ 5월 7일(금) | 4교구 1팀  | 신동수 |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5월 4일(화) ~ 5월 12일(수) | 15교구 1팀 | 나승은 |
| 5월 4일(화) ~ 5월 12일(수) | 20교구 1팀 | 배관용 |
| 5월 7일(금) ~ 5월 14일(금) | 13교구 1팀 | 김대용 |



# 복음의 새싹들

Dear, Jesus.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계시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위로를 주는 그대를 낳아주고, 재앙에 내리심을 때에 재앙을 끝이 없었음을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오셔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도 없애주시고 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고, 그 날까지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I believe and follow Jesus, love you!

-From Solomon (3岁)

2010.5.2



조동1부

아기와 함께 찬양을



정성껏 헌금해요

영아부

친구들  
트러함



유지부

안녕하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제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죄도 용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드릴게요. 영매와 영매와 함께 이름 주시게요

예수님! 저 수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로제물로 보내 주셨죠.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으면 아바 저는 영영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라" 하시고 유대 군병들에게 골려가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저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많이 슬프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픈 사람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위대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갓세 마데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로 근신하시고 또한 그 마귀의 유혹도 다 이기셨어요. 만약 저였다면 일주일도 채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기쁨의 부활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도와 주신 예수님! 저도 이렇게 겸손하고 훌륭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청직한 마음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약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께 늘 찬양을 드릴게요. 영매 돌려드리는 수진이 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조동2부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니이다"(마태복음 11:25)

1 Did Jesus really resurect?  
2 Now christ has been raised f

매주일 영어로 예수님을 만나는 선데이 영어교실! 한 어린이가 오늘 배운 영어말씀을 쓰고 있다.



\*매주일 선데이 영어교실을 설치하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문의: 제1교육관 607호(내선 231)/016-388-8291

선데이 영어교실

예수님을 찬양해요



유아부

유지부



제1교육관 7층에 마련된 영유아도서실과 초중도서실. 이곳에서 천국일꾼들은 성경관련 도서를 읽으며 예수님을 만났다.

영유아도서실 · 초중도서실



## 에바다부 / 십자가의 길

## 아름다운 영혼, 에바다부 지체들

##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 에바다부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 대부분의 다른 교회 동아인 모임을 보면 불령이나 게임 등을 통한 ‘교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우리 교회는 교제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십자가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참 중요요. (박영진)



## 에바다부를 나오게 된 계기는?

· 안 TV 프로그램에 중언교회와 에바다부가 소개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지호)

· 대략부 때 에바다부 선생님께서 수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수화가 참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했고, 3년이 지나 에바다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수화를 통해 농아인들을 많이 알아가며 교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수화를 더 많이 배워서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황세연 선생님)

· 하나님께서 저를 꼭 집어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어요. (박영진)



## 에바다부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다면?

·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박종연)



· 저는 처음에 에바다부 수와 통역에배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학업이나 개인적인 일로 바쁠 때면 에바를 자주 빠졌어요. 그러면서 믿음도 함께 약해졌어요. 바로 그 때 에바다부를 소개받았고 예배와 믿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었어요. (김나리)



‘찬양’ 하면, 꼭꼭에 맞추어 가사를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에바다부의 찬양은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평소 찬양을 어떻게 부르든지,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 마음으로 불러요. 성경을 읽을 때 느껴지는 기쁨, 슬픔, 감동 등 여러 가지 감정을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보면서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감사와 은혜를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요. 이 때 느껴지는 감동은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시는 성도님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김나리)

· 가끔 농아인들이 수화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이 목소리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농아인들이 몸짓으로 표현하는 찬양의 고백이 더 가슴에 와 닿는답니다. (박유미 선생님)

· 그 간 찬양을 드릴 때뿐 아니라 말씀을 나눌 때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뭐랄까, 그 연합 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느낌이지요. (고용섭 선생님)



##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예수님 때문에 저, 너무 행복해요. (박재학)

·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때까지 우리를 잘 지켜 주세요. (김나리)

·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사는 저에게 평안을 내려 주셔서 감사해요. (박종연)

·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호)



듣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며 해서 주님과의 소통마저 단절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약할 때 도리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바울처럼, 인터넷을 하는 동안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함을 느꼈다. 이제 그들의 장에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후12:9). 다시 오실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전하는 수화가 귀에 직접 들리지는 않았지만 영혼의 진실된 고백임을 느낄 수 있었다.

· 취재 | 노하은 기자



4. 25 주일찬양예배  
찬양을 드리는 에바다부 수화전망



에바다부 주일집회  
900(목성) 1300(성일)

## 십자가의 길

## 어린 아이치러림

“어린이들이 종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귀의 거장자이다. 만아 그리스도에서 어린 이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과연 어린이를 믿음의 표준으로 삼으셨을까?” (D.L. Moody).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정도로 모호하게 만들지 않는다. 말씀 중에는 우리의 기원과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길로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로 3:16). 어린 아이가 되어 구원의 진리를 단순히 믿자. 아메.



## ♡ 새 가 족 율 환 영 합 니 다 ♡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430 | 하성부 | 8  | 장년1부 | 김광진(8)  | 445 | 김진아 | 22 | 장년1부 | 김영주(23) |
| 431 | 허선영 | 3  | 청년1부 |         | 446 | 신효성 | 2  | 청년1부 | 전경희(18) |
| 432 | 정도희 | 18 | 청년1부 | 조영진(21) | 447 | 신효원 | 23 | 대학부  | 구영희(24) |
| 433 | 사재홍 | 21 | 장년2부 | 서덕순(21) | 448 | 김다은 | 21 | 초등2부 | 한은희(20) |
| 434 | 현수진 | 10 | 초등2부 | 도승애(17) | 449 | 조미옥 | 8  | 청년1부 | 황은희(18) |
| 435 | 강영남 | 10 | 청년2부 | 오형철(16) | 450 | 김정란 | 16 | 청년2부 | 전옥순(20) |
| 436 | 김현정 | 1  | 청년1부 | 이승순(10) | 451 | 박민수 | 16 | 초등2부 | 송혜숙(20) |
| 437 | 강영남 | 1  | 청년2부 | 강영희(24) | 452 | 오상수 | 11 | 청년2부 | 노은희(18) |
| 438 | 김석규 | 10 | 장년3부 | 박은주(10) | 453 | 전영복 | 24 | 청년2부 | 박경숙(24) |
| 439 | 정현태 | 20 | 장년2부 | 김영미(20) | 454 | 이해정 | 17 | 장년1부 | 이해숙(17) |
| 440 | 김다은 | 23 | 대학부  | 김미자(23) | 455 | 박재홍 | 20 | 장년1부 | 강석희(20) |
| 441 | 김영란 | 17 | 장년1부 | 고진순(19) | 456 | 최정현 | 10 | 장년1부 | 안세현(3)  |
| 442 | 문정환 | 6  | 초등1부 | 윤수진(16) | 457 | 강연희 | 8  | 장년1부 | 김원희(16) |
| 443 | 지소원 | 1  | 청년1부 |         | 458 | 김정수 | 17 | 소망부  | 김경자(20) |
| 444 | 최우영 | 17 | 장년2부 | 이교훈(17) | 459 | 남정환 | 21 | 대학부  | 정구원(7)  |

※ 충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